

2017년 5월 17일, 구좌읍 덕천리 김차순 씨 댁, 이현정 조사.

김차순(여, 1943년생, 구좌읍 덕천리)

- 줄거리: 제보자의 언니가 4·3사건에 휘말려 죽게 되었는데, 언니를 마음에 두었던 같은 동네 총각도 변을 당한다. 총각의 가족들은 영혼결혼식을 대신하여, 제보자의 가족들에게 둘의 무덤을 나란히 묻어 부부처럼 위해주자고 제안한다. 제보자의 가족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을 나란히 묻는다. 얼마 안 되어, 제보자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다. 용한 무당에게 묻자 죽은 언니가 죽은 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것이며,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고자 제보자에게 병이 나타나게 한 것이라는 대답을 듣는다. 결국 언니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제보자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이다.

[조사자] 그만 이 동네에 혹시 억울하게 죽었거나 그나마 좀 잠잠했던 이런 얘기도 엊어마씨?

[제보자] 억울하게 죽은 거는 4·3사건 당시 억울하게 죽었다. 거 후로는.

[조사자] 그만 4·3사건에 이 동네에도 사름덜 많이 죽었지예?

[제보자] 아니고, 많이 죽었지.

[조사자]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은 사름덜을 이제 뭐 얘기 듣기로 ‘영 헤그네 위로헤그네 마을을 좀 어떻게 조용하게 헷다.’ 이런 얘기 잊어마씨?

[제보자] 아니, 거 공동으로 마을에서 뭐 헌 적은 엇고. 나도 우리 언니, 우리 형부가 4·3 사건에 돌아가셨주게. 경 허나네 우리 언니가 열아홉에 인물도 좋고 헨디. 그냥 그, 죄인을 써가지고 심어가니까. 그냥 총살시켜 분 거라게. 경 허니까 나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다. 나가 아팟던 거라. 앗안 쓸은이. 방 이런 디 쓸 찰리를 놓고 옛날은 살으니까. 그 쓸을 앗안 걸연 밥을 씻천 허젌 하니까 일어사질 못한 거라게.

게난, 이젠 어무니가 잊인 땐디.

“아, 이거는 이상하다. 어데 강 들어봐야 뭐겠다.”

그 시절에는 순 심방뻘이 몰랐주게. 어디 강 들어보니까 아, 이 억울하게 죽은 딸

은 그때 당시 이 동네 분인디 그디도. 우리 저 뭐 그디도 4·3사건에 돌아가신 남자 분인디. 우리 형부 이제 허젠. 그디서가 남자 쪽에서가 우리 언니를 막 저 뭐 헷단 거라. 생각을 했던 거라.

경 허난 같이 돌아가시니까 거기서가 이제 물도 걸여놓고 다
“뭐 허쿠다. 우리 사돈 맷입주핸.”

헌 뭐 잊어낫주게. 경 허니까 이제는 아. 묻는 것도 같이 묻고. 겨난 결혼식이엔 헌 거는 엊엇주게. 죽은 혼수라도 헷으면 혈 건디. 그 옛날 그 시절엔 그런 저런 생각이 엊엇던 거라. 우리 어무니는. 겨난 죽은 혼수도 못햇고 그냥 같이 간 영 따로 묻기는 헷어야. 경 허난 요걸 입질해 난 거라. 나가.

아침에 일어나네 영 걸영 가그네 쓸 씻엉 밥을 허젠허난. 영 쓸을 걸영 일어사지를 못혜연. 경 허난 우리 어무니가 ‘아, 이상하다.’ 어디 강 들어본 거지. 들어보니까 이걸 입질핸 헌 거라.

[조사자] 뭐를?

[제보자] 이게이 그냥 그 처녀 때에 총각 때엔 이제 우리 언니를 좋은데 헌디. 이제 장가를 놓으жен 헷인디. 4·3사건 당시 그냥 총 팡팡 쌩그네 죽엇잖아.

[조사자] 남자가예?

[제보자] 남자두 죽고 우리 언니도 죽곡. 경 헌디 이거 그때 그 생각헤나난
“우리 ?찌 합동을 헤그네에 협주.”

남자 쪽에서가. 경 허난 이제 우리 어무니넨 뭐 그런대로 이젠
“경 협주.”

혜연 허난. 같이 간 영 헤네 부부엔 말만 헤여그네에 영 핸. 뭣 죽은 혼수도 아니고. 옛날 죽은 혼수도 다 한덴 허는디. 우리 어무니는 그걸 못헌 거라이. 겨난 나가 아프니까 요걸 입질핸 헌 거라. 어디 강 들으니까. 우리 언니는 인물도 좋고 남자는 인물이 엊어낫어야. 경 허니까 죽어도 요게 나타나분 거라.

“나는 안 살겠다.”

[조사자] 아. 언니가.

[제보자] “어. 나는 이 사름하고 안 살아서 나가 나간다.”

경 핸 이젠 입질해 나니까이 언니를 옮겨야 내가…….

[조사자] 산다고.

[제보자] 어, 좋지.

“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기냥 끌고 나가겠다.”

입질해나 부니까. 경 허난 이젠 집이서 이젠 굿도 헷주. 우리이, 굿도 허곡 허나
네 그 때도 입질해 나가지고

“아, 이 산은 옮겨야 돼쿠다. 이거 아니 옮겼을 때 이 동생이 안뗄 거니까 그 줄 압서.”

경 허난게 나가 굽언만 이 지팡일 겨우네, 죽은 혼수도 안 헷지. 또 우리 언니가
살았던 때도 마음엔 엊어낫지이.

그러니까 나가 경 아프니깐 이제

“나가 너무 섭섭하고. 이 동싱헌테 나께이 억울한 그 마음 속 해풀일 못 허겠다.”

헤여그네, 이제 죽은 영혼이 형제 간안티 이렇게 돼니까.

“나는 막 아프다. 담 베꼈디 나가야 이 동싱도 잘 걷고.”

게난 나도 침 맞으려여 어디여 팔도강산 다 유람헌 사름. 나도 내, 하이고 영 살
단보난 벨 걸 다 겪은 사름. 게난, 경 헨 이젠 집이서 굿 허난 또 이추룩 행 골아부
니까. 산을 옮겼어.

[조사자] 그로후제는?

[제보자] 그로후에는 좀 일어사서 뎅겼주.

[조사자] 거 신기허다예.

- 핵심어 : 4·3사건, 총살, 죽은 혼수, 억울함, 입질, 병, 굿, 총각, 처녀, 영혼결혼식, 언니, 영혼